

문동신, 현안 해결 · 국비 확보 분주

(군산시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면담... 군산조선소 정상화 · 국가예산 확보 협조 건의

문동신 군산시장은 27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군산조선소 정상화와 새만금 개발 등 현안사업 추진 관련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을 통해 문 시장은 군산조선소의 도크 폐쇄가 전복경계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설명하고 도

크 유지에 대한 선박건조 물량배정과 인력유지 등 군산조선소 존치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건의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 비서실에 접담부서 설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공

공주도 용지 매입을 통한 속도감 있는 개발을 건의했다.

내년도 국가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새만금 SOC 조기구축을 위한 동서·남북도로, 새만금 신공항, 신항만, 새만금~대야간 철도, 새만금 방수제 축조 및 농업용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6,110억원을 건의하고 군산항 항로입

구부 준설사업,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국도 4호선 잔여구간(장자도~관리도) 개설사업의 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적극 요청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는 군산은 물론 전북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대 도서관 이현주 주무관 교육부장관상 수상

군산대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는 이현주(40) 주무관이 대학도서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청주에서 열린 전국대학도서관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현주 주무관은 2006년부터 11년 동안 군산대학교 도서관 사서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창의적인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 및 전문성 있는 정보서비스 제공 등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발휘해 왔고, 대학도서관 목표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학술정보 공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현주 주무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최신 기술 동향과 정보를 교류하고 미래대학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대학도서관 역할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더욱 매진해 능동적인 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교육연구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현주 주무관

/군산=장 현 기자

익산시, 민·관 합동 악취 야간 현장행정

시 관계자 · 악취모니터요원 · 동산동 주민, 분뇨처리장 등 순회 실태 점검

익산시가 악취모니터요원과 함께 27일 오후 8시경 동산동 일대에서 악취 야간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지역주민의 환경의식 증대로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악취는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주관적 감각공해로 임인과 악과 관리가 어렵다. 이에 시는 민·관이 함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현장행정을 추진하게 됐다.

시 관계자, 악취모니터요원, 동산동 주민은 이날 합동으로 동산동에 위치한 상시 악취 발생시설인 음식물처리장,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농가 등을 순회하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음식물처리장,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운영과 악취저감 시설운영 등을 중점 점검하고 악취 발생 주요공정 밀폐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했다.

악취모니터요원들은 악취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장의 악취 저감과 개선방안을 직접보고 들으며 악취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에



익산시가 악취모니터요원과 함께 27일 오후 8시경 동산동 일대에서 악취 야간 현장 행정을 실시했다.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승원 과장은 이날 "악취 취약시간대에 모니터 요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행정을 추진해 쾌적한 대기 만들기에 힘을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고 악취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악취모니터요원'은 악취 민원 발생 지역과 인근축사 및 주택가, 공장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시하고 발생원을 모니터링해 주민들의 악취피해를 없애는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직영미화원 대청결활동

군산시는 27일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고 사람들의 이용이 적은 지방도 711호선 중 임피면 축산리에서 서수면 관원리까지 약 5km 구간에 대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시에서는 이번 정화활동을 통해 지방도 구간 내 12개소의 시내버스 승강장과 교차로, 도로사면에 쌓여 있는 폐해자재를 집중적으로 정비했으며, 특히 40여명의 직영미화원들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적극 동참했다.

/군산=장 현 기자

익산농기센터, 강소농 경영개선 후속교육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끊임없는 역량 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경영개선을 실천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에 이어 2017년도 강소농 경영개선 후속교육을 27일 익산시 농업인 교육관에서 실시했다.

이번 강소농 후속교육은 기존 강소농 4농가를 포함하여 총 31개 농가를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1회차 교육은 지속적으로 자율·자

립 경영 개선을 실천하기 위한 자율모임체 육성을 위하여 지난 2016년도 전국 창조농업 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영광군 강소농 모임체 '별난 농부들'의 대표인 임세훈 대표이사의 우수사례특강으로 시작했다.

앞으로 강소농가의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위해 (주)금산화커뮤니케이션 김용환 대표와 함께 6개 강소농 경영체를 중심으로 현장방문 클러스코칭 및 경영개선 브레인스토밍이 진행되며, 소그룹

별 자율모임체 구성을 유도하여 경쟁력 향상을 끌어내기 위한 고혁신리 홍보 및 마케팅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품목별 표준 진단, 경영관리 역량진단과 현장 크로스코칭이 접목된 이번 강소농 경영개선 후속 교육이 각 개별 농업경영체들의 농장 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방향 제시할 것"이라며 "차별화된 강소농 경영 마인드 확립뿐 아니라 농업 현장에서 자립성 강한 강소농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탄생

'렛츠런 꿈:D' 개소... 검정고시 준비 · 직업 체험 장소

군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27일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 '렛츠런 꿈:D'의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군산시청소년지원센터 렛츠런 꿈:D 개소식에는 한준수 군산시 부시장을 비롯하여 군산시의 회 의원들과 김학신 렛츠런재단 사무총장, 여성가족부 및 기타 유관기관 관계자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렛츠런 꿈:D'는 '꿈을 디자인하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으로써 여성가족부와 한국마사회 렛츠런재단이 주관한 공모사업에 군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선정됨으로써 군산시의 지원을 받아 전북도에서는 최초로 군산에 조성되었다.

또한 '렛츠런 꿈:D'는 지역사회 내 유일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준비 및 직업 체험 및 훈련을 위한 장소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산시청소년지원센터는 앞으로 '렛츠런 꿈:D'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기반을 목표로 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자격증취득지원 프로그램, 스테디동아리, 청소년 자조활동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렛츠런 꿈:D'가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러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해경, '해양치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해양정책을 토론했다는 자리가 개최됐다.

27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 평가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양치안 정책을 실현하고자 2017년도 2차 '해양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 21명으로 구성된 해양치안협의회는 지난 2010년 해상치안 전문위원들을 통합해 현재 협의회로 발족했다.

그 후 매년 3~4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해양경찰 발전을 위한 격려와 지원은 물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주저하지 않는 자문과 협의체 역할로서의 소임을 묵묵히 해내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군산해경은 ▲상반기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성과와 반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준비와 대응 ▲주요 추진업무 ▲현안 업무 순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협의회에서는 '해양경찰 발전을 위한 협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신규위원 위촉식 등의 식전 행사가 진행됐다.

협의회 한창범 위원장은 "예년보다 해양사고가 줄고 있어 군산해경의 노력을 짐작할 수 있다"며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에 보다 힘써 달라"고 말했다고, 이에 채광철 서장은 "바다가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21명의 협의회 인원에서 1명(동우환경산업 대표이사 신석문)이 위원으로 추가 위촉되면서 해양치안협의회의 회원은 모두 22명으로 늘었다.

/군산=장 현 기자

익산시, '오동정천 정비사업' 조기 준공

익산시는 망성면 어랑리 일원의 '오동정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정마철 이전에 조기 준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동정천은 삼습침수발생 지역이다. 이에 시는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도 10월에 공사 착공, 올해 6월에 공사를 완료했다.

이 사업은 남산면 어랑리 일원 약 740m구간으로 총사업비 26억원(국비 13억원, 시비 13억원)을 투입하여 하천 준설과 친환경적인 자연식 제방을 축조하여 생태하천 복원에 중점을 뒀다. 삼습 침수 지구에 대한 하천 통수 단면을 확장하고 호우피해를 예방해 지역주민들의 농업생산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에서
복합한 교육 기회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육지리'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